



농민들이 FX 조정과 대두 부족에 주목하면서 아르헨티나 곡물 무역 '마비'

(Argentina grains trade 'paralyzed' as farmers eye FX adjustment, bean shortage)

주요 수출실 의장은 로이터 통신에, 아르헨티나의 곡물 무역은 가뭄으로 인한 대두 부족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당선인 하에서 폐소화 평가절하를 예상하여 농산물을 보유하고 있는 농부들로 인해 대부분 "마비"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카길과 번지 등 아르헨티나의 주요 곡물 회사를 대표하는 가공 및 수출 단체인 CIARA-CEC에서 지난 일요일 자유주의 성향의 밀레이 당선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그는 12월 10일에 취임한다.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으로 세계 최대 가공 대두 수출국이자 옥수수 3위 수출국이다. 또한 밀과 쇠고기 주요 공급국이기도 하다. CIARA-CEC의 Gustavo Idigoras 대표는 수요일, "오늘 곡물 무역은 60년 만에 최악의 곡물 부족과 밀레이의 승리 이후 곧 공식 환율이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마비됐다"고 말했다. 세 자릿수 인플레이션과 통화 하락에 맞서 싸우는 아르헨티나는 엄격한 자본 통제를 통해 공식 환율인 350페소와는 거리가 먼 달러당 1,000페소에 달하는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종종 해외 판매의 대부분을 공식 환율로 국내로 가져와야 하는 수출업자에게 타격을 주며, 1달러당 페소를 더 적게 받게 된다. 정부가 농부들을 위해 환율 우대 정책을 시행하여 더 나은 환율을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생산자들은 밀레이가 취임하면 무엇을 할지 기다리고 있다. 그는 통화 통제를 철폐하고 세금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Idigoras는 파라나 강을 따라 위치한 대두유와 대두박 가공 공장에 콩이 부족하여 시설이 매우 적은 용량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공 공장의 평균 유틸 용량은 73%이고 곡물 항구의 유틸 용량은 75%에 달한다."며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해와 최악의 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공 공장이 계속 가동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운영 중단을 앞당기고 있다며, "대부분 이미 많은 생산 라인에서 이러한 기술적 중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활성 생산 라인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Idigoras는 밀레이 정부에 세금 및 외화 접근을 포함한 곡물에 대한 무역 제한을 신속히 철폐하고, 수입 허가에 대한 수출 상한 및 관료적 절차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밀레이 정부는 역사상 가장 큰 수출 중심, 공격적인 수출 정책을 갖고 있는 정부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조한 토양으로 인해 인도 농부들은 가격 반등에도 불구하고 밀 재배 경계

(Dry soil makes Indian farmers wary of planting wheat, despite rally)

인도의 밀 재배는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양 수분이 낮아져 일부 지역의 농부들이 물을 덜 사용하는 작물로 전환하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와 과학자들이 로이터에 전했다. 그들은 제한된 재배 면적과 1분기에 평소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 수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위협 때문에,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은 수출 금지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수입에 의지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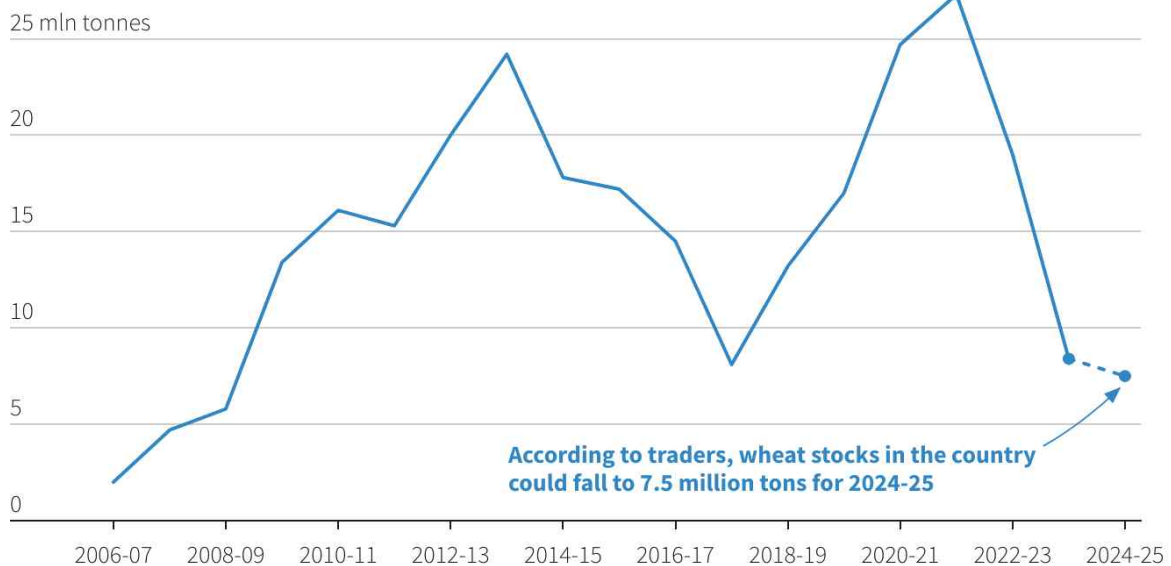
농무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17일 현재 인도 농민들은 전년 대비 거의 5.5% 감소한 860만 헥타르에 밀을 심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생산지인 북부 하리아나(Haryana), 편자브

(Punjab),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의 농부들은 밀 수확량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관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생산지인 중부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의 농부들은 물을 덜 사용하는 작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주요 민간 밀 구매업체의 고위 관계자는 "마디아프라데시의 밀 재배 지역은 1년 전보다 약 10% 감소할 수 있다"며, 그는 "낮은 강수량과 제한된 관개용수로 인해 마디아프라데시의 특정 지역에서는 밀에서 병아리콩으로의 전환이 관찰되었다."고 말했다. 근처 마하라슈트라 주에서는 농부 Avinash Phalke가 이번 달 초 3에이커에 밀 대신 수수를 심었다. 그는 "우물이 거의 말라버려서, 물이 덜 필요한 작물을 심을 수밖에 없다. 수수는 소에게 먹이도 제공하기 때문에 수수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엘니뇨 기후 패턴으로 인해 8월이 100여년 만에 가장 가물게 된 인도는 올해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몬순 비가 내리면서 토양 수분 수준이 감소하고 저수지도 낮아졌다. 국영 인도 밀 및 보리 연구소 소장인 Gyanendra Singh은 로이터 통신에, 편자브, 하리아나, 우타르프라데시에서 벼 수확이 지연되면서 밀 재배가 둔화되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에서는 매년 한 번만 밀을 재배하며 10월과 11월에 심고 3월부터 수확한다. 뉴델리는 2024년 정부의 밀 구매 가격을 100kg당 2,275루피로 인상했지만, 현재 가격은 거의 25% 더 높다. Olam Agri India의 수석 부사장인 Nitin Gupta는 "토양 수분 수준은 일부 주에서 우려되고 있지만, 최소 지원 가격을 7% 인상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밀에 대한 농부들의 관심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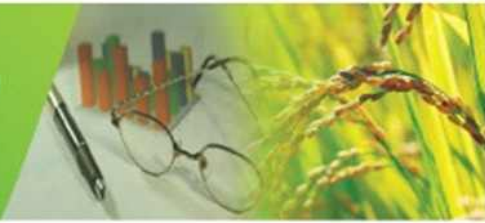
Falling wheat stocks

Wheat stocks in India have been decreasing consistently since 2021-22. They are estimated to be at lowest levels in the last 15 years in 2024-25, according to trade estimates.



Note: The years on the horizontal axis refer to the fiscal years starting on April 1.

Source: Government data | Reuters, Nov. 23, 2023 | By Sumanta Sen



Phillip Capital India Pvt. Ltd.의 원자재 연구 담당 부사장인 Ashwini Bansod는 밀과 유채와 같은 겨울에 파종되는 작물의 경우, 일반적인 엘니노 시기에 나타나는 12월부터 3월까지의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수확량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미국 정부 기상예보관은 엘니노 현상이 4월부터 6월까지 북반구 전역에 걸쳐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의 밀 수확량은 중요한 곡물 성장 단계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 2022년과 2023년 동안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수출을 금지했다. 지난 2년은 라니냐(La Nina)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 기온이 높아 수확량에 타격을 입었다.

곡물을 자급자족하는 인도의 밀 재고량은 11월 1일 현재 2,190만 톤으로, 5년 평균 3,480만 톤에 크게 못 미쳤다. 익명을 요구한 뉴델리에 본사를 둔 글로벌 무역 회사의 한 딜러는 "인도는 재고가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 평소보다 낮은 생산량을 보이면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수확량이 줄어들면 밀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Thomson Reuters